

1998 치과계 전망

# 예산의 적절한 조절로 재정수급 합리화에 주력



재무이사 김우중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각 위원회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월별·분기별로  
 분석 평가,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수급  
 합리화에 주력...

우리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재정과 행정적인 뒷받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치과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건복지부내 구강보건과가 설치되어 올해부터는 행정력의 뒷받침에 의해 국민구강보건 증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도 구강보건에 대한 많은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한국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 정권교체를 이루어 앞으로 많은 변혁이 예상되고 특히 우리 국민경제의 위기상황으로 국제통화기금체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단행됨으로써 모든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치과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치과기자재의 가격폭등과 수급안정 불균형, 환자감소에 따른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급속히 닥쳐와 대출받은 회원들은 금리부담이 증가되고 신규 개원의는 대출이 막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은 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협회 재무위원회에서는 업무 효율화와 원활한 회무운영을 위해 협회 재정의 근간이 되는 회비와 제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여 재정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할 생각입니다.

일반회원은 종전과 같이 신상신고와 병행하여 징수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는 우편계좌와 지로용지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국의 극복은 예산절감 뿐이므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뒤로 미루고 각 위원회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대한 월별·분기별로 분석 평가,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조절하여 회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재정수급 합리화에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의 고금리를 맞이하여 적립금 등 여유자금은 이자소득의 극대화를 위해 신종적립식신탁과 같은 높은 예금에 예치하여 다소나마 협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신정부에서는 세계개편에 따른 세율인상과 그동안 물품생산에만 적용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서비스업종까지 광범위하게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세율인상도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오니 앞으로도 치과계 발전을 위하여 회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